

“보건의료 ; 담배없는 세계를 향한 창문”



보건사회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의학협회 등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적극적인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의료” : 담배없는 세계를 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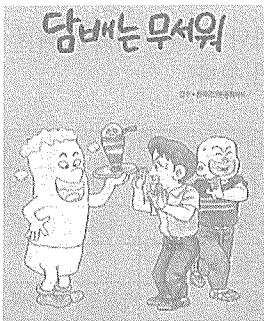
‘93 세계 금연의 날, 대대적 금연 행사 전개

창문”이라는 주제 하에 이들 단체들은 금연 결의문을 발표하고 직장에서의 금연을 생활화하는 한편 국민들에 대한 금연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는, 오전 9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적 금연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과 함께 “보건의료계의 금연운동”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캠페인과 기념식에서는 국민이 함께 하는 대형 걸개그림이 그려졌고 흡연 텔런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건협, “담배는 무서워” 만화책 제작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보건사회부는 '93년 세계 금연의 날에 즈음하여 “담배는

금연 생활화 위해 국교생 대상으로

무서워”라는 금연 계몽용 만화 책자 1만부를 제작·배부했다.

이 만화 책자는, 금연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의 필요성을 어릴 때부터 깨닫도록 함으로써 장기적 측면에서 금연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지난 5월31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국민학교에 배부되었다.

지역주민 무료 검사 추진

건협 전북지부, 전주 백화점 앞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가 매월 가두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주 백화점 앞에서 혈액형, 혈

당 등 무료검사를 실시했던 건협 전북지부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매월 일정 기간을 정해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전화번호 변경 안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의 AIDS 상담 전용 전화의 번호가 지난 6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변경 후
3-1100	223-1100

7월 건강관리 공개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각 시도지부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지부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서울지부	8일(오후2시)	동작구민회관	고혈압 및 합병증 관리	이홍순(국립의료원)
	22일(오후2시)	동작구민회관	스트레스와 성인병	신호철(가톨릭의대)
부산지부	22일(오후2시)	지부 홍보관	신장질환	
대구지부	27일(오후2시)	지부 홍보관	고혈압	박희명(전 경북의대 교수)
인천지부	23일(오후2시)	지부 홍보관	대장질환	손승국(연세의대)
경기지부	27일(오후2시)	지부 홍보관	간장질환	이천우(경기지부 관리의사)

○...제주도 치과의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제주도내 국민학생 대상 제1회 건치아동 선발대회에서 영광의 「건치아동 선발 최우수상」에 건협 제주지부 황순갑씨의 2녀 인영양(13세, 남제주국교 6년)이 차지해 화제.



사진 좌로부터 다섯번째 어린이가 최우수 건치아동으로 선발된 황인영양

최우수 건치아동에 황인영양

건협 제주지부 황순갑씨 2녀, 제1회 제주도 구강 보건의 날에

○...지난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에 최우수상을 받은 인영양은 『하루 세번 이상 이를 닦고 이에 해로운 과자나 초콜렛보다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라고 치아관리법을 밝혔다.

○...그녀는 또, 『저희 아버지께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다니시기 때문인지 저희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구강검사와 건강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거든요. 그 덕분에 이렇게 튼튼한 이를 갖게 되었고 상도 받게 된 것 같아요.』라고 당선의 공을 부모에게 돌리기도.

건협 서울지부, 응원상 받아

강서·양천지역 기관 단체 친선 축구대회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제2회 강서·양천신문사배 기관 단체 친선 축구대회에서 응원상을 받았다.

강서·양천구내 기관 단체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난 5월 29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축구장에서 열렸던 이 축구 대회에는 건협 서울지부·화곡우체국·한국전력 등을 비롯해 14개 단체의 선수, 응원단, 내빈 등 약 8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날 우승은 한국전력이, 준우승은 양천구청이 각각 차지했으며 정·팽파리·북 등을 동원하여 응원전을 펼쳤던 건협 서울지부가 응원상을 받게 된 것이다.